

(예비)사회적기업 맞춤형 지원 나서

전주시, 기존 직접지원에서 공공구매 확대·컨설팅·홍보 등 간접지원에도 힘 쏟기로

전주시가 재정지원과 공공구매 활성화 등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친화적인 기업으로 키우기로 했다.

시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갖춘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지역친화적 전주형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체계 구축에 나설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민선 6기 출범 후 본격적으로 싹튼 전주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보다 굳건히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재정지원 등 기존의 직접적인 지원에서 외연을 넓혀 기업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판매환경 마련과 컨설팅 및 홍보 등 간접지원에도 보다 힘을 쏟기로 했다. 특히, 시는 각 부서별 구매담당자와 혁신도시 공공기관 및 전주시내 학교 공공구매 담당자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공공구매를 늘리도록 협조를 구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홍보활동도 활발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예비 사회적기업들이 전문 컨설팅기관이 주관하는 교육 및 사업 등에 참여토록 하는 등 기초 컨설팅을 제공하고, 홍보·마케팅과 경영전략 분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무료 컨설팅 등 봉사 에 나서는 프로보노 지원서비스도 강



이달에 열린 시민독서토론

전주시는 7일 시청1층 로비에 마련된 전주책방에서 시민들의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책을 읽고 함께 토론하는 '9월 열린 시민독서토론'을 개최했다. 전주시는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전주시청 1층 전주책방에서 독서토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화기로 했다.

동시에, 그간 추진해온 일자리창출 사업과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기존의 재정지원사업도 지속 전개된다.

시는 조만간 우수사회적기업과 신규 기업 간 만남의 자리를 마련,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내실을 다질 예정이다.

시는 보다 체계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시스템이 갖춰지면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익을 지역사회를 위해 환원하는 지역친화적인 전주형 사회적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올해 신규 지정된 8곳을

포함한 총 67개소로, 지난 7년간 꾸준히 성장해 왔다. 이제 전주 사회적경제는 새싹의 시기를 넘어 성숙의 시기로 도약하고 있다"라며 "이 변화에 발맞춰 기업지원의 방식 또한 변화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서학동 옛 계단골목' 문화 공간 된다

전주시, 골목벽화 그리기 사업 추진

전주시 서학동 공수내2길 계단에서 완산 투구봉으로 이어지는 옛 계단 골목이 문화가 가득한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학동과 완산동 일대의 투구봉은 매년 봄마다 온 산이 붉게 물들어 전주시민들은 한바퀴 올라가 꽃을 감상하는 명소를 주목받고 있다.

전주시는 KT&G 전북본부와 자원봉사 대학생 등과 함께 초록바위 옆 서학동 공수내2길 계단에서 투구봉으로 이어지는 옛 계단 골목에 대한 골목벽화 그리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가 벽화 재료를 지

원하고 마을주민과 KT&G 전북본부 관계자, 자원봉사 대학생 등 200여명의 재능기부로 실시된다.

이들은 오는 9월 노후담장 및 계단 바탕치리를 시작으로 16일까지 바탕치리와 스케치, 페인트칠하기 등 3단계 작업을 통해 총 길이 120m, 높이 2~9m의 골목담장 및 계단에 벽화를 그릴 예정이다.

전주시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이번 벽화 그리기 사업을 통해 낙후된 마을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스토리가 있는 마을로 재생시켜 지역화와 마을단위 주거복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군산 해상서 어선끼리 충돌 1척 침몰

군산 해상에서 어선끼리 충돌해 어선 1척이 침몰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오전 5시 15분께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약 117km해상에서 같이 조업하던 139급 쌍끌이 어선이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그물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접근하는 상대 선박을 알아채지 못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쌍끌이 어선 두 척 중 한

척이 침몰했으나 선장 A(48)씨를 포함한 선원 13명 전원이 건너편 배로 옮겨 타 인명피해는 없었다.

침몰한 배에는 연료(경유)가 1만 8000l 남아있었지만 선박 침몰 전 연료 환기구멍을 막아 추가 오염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해경은 1,000급 경비함을 사고해역 안전관리를 위해 보내고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삼민 기자

전주시, 복지용전기자동차 보급

전주시가 완산구 11개 동과 덕진구 9개 동에 복지차량으로 전기자동차가 보급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는 동은 노송동, 서서학동, 중화산1·2동, 평화1동, 서산동, 삼천1·2동, 효자1·2·3동 등 완산구 11개 동과 진북동, 인후1·2·3동, 덕진동, 우이2동, 호성동, 송천2동, 동산동 등 덕진구 9개 동이다.

시는 현재 전기자동차를 보급하기 위한 국비(보관기금) 2억1,000만원과 시비(2억1,000만원) 편성이 완료된 만큼 이달 중 환경부 보조금 예산(2억 8,000만원) 편성을 진행하고 내달 중으로 복지차량을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가 보급되면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충전기 설치를 위해 현장실사를 완료했으며, 사업자인 (주)KT는 조만간 환경부에 충전기 보조금 신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 혁신도시에서 '한복문화행사' 개최

한복 패션쇼·한복퀴즈대회·포토존·비보이댄스 등 볼거리·즐길거리 넘쳐

생활 속 한복입기 문화 확산에 나선 전주시가 혁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첫 번째 한복문화행사를 개최하면서 혁신도시가 고운 한복과 문화로 채워졌다.

전주시는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행사에 대한 감증을 해소하고 생활 속 한복입기 문화 확산을 위해 7일 전북 혁신도시 내 연순근린공원에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과 주민들이 함께하는 한복문화행사를 개최했다.

전주패션협회(회장 최경은)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기차를 타고 전주를 찾는 관광객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전주역 앞 첫바중길의 흥겨운 한복행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진행된 한복문화행사로, 혁신도시 주민들의 문화수요에 대한 감증을 해소하

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먼저 전주시 홍보대사인 비보이 댄스 그룹 '라스트 포인'이 축하공연으로 축제의 흥을 한껏 끌어올렸으며, 꽃발정이 실버무용단의 부채입춤과 유아들의 강강수월래는 우리의 전통문화를 곱씹어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또한, 다양하고 아름다운 우리 한복을 선보인 우리전통한복 패션쇼와 초등학생, 주민, 이전 공공기관 직원 등 15팀이 참여해 한복을 입고 런웨이에 서 한복의 멋을 뽐내는 이색적인 시 민참여 패션쇼가 펼쳐져 주민들이 한복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진 유쾌한 자리로 꾸며졌다.

이외에, 이날 행사에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한복을 입어보고 사진을 촬영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한복체험 부

스와 포토존이 설치되고, 한복에 관한 지식을 묻고 답하는 한복퀴즈대회도 흥미롭게 진행됐다.

이와 관련, 시는 현재 한복 문화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복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넷째 주 토요일을 한복의 날로 지정해 한복을 입고 경기전에 입장하는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감면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혁신의 참단에 서 있는 이 지역에서 전통문화자원을 주제로 이런 행사를 진행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행사가 자주 펼쳐짐으로써 일과 문화가 서로 균형을 이루고 나아가 한복에 대한 시민들의 애정도 높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심부름 하는 척 현금 빼돌린 20대 입건

주요 사장의 심부름을 하는 척 현금을 빼돌린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7일 절도 등의 혐의로 김모(24)씨를 불구속 입건 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8시 35분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은행에서 주유소 사장 A(61)씨의 통장에서 6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무단 인출했다.

또한 그는 이튿날 오전 6시 16분께 주유소 사장의 통장에서 똑같이 6차례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무단 인출해 모두 12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무단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의 주유소에서 일하던 종업원으로 평소 A씨가 김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통장을 맡겨 계좌이체 등의 심부름 시켜 왔다. 조사과정에서 김씨는 "통장에 큰돈을 보자 욕심이 생겼다"며 "훔친 돈

은 생활비와 유류비로 썼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완산경찰서,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비 특별 점검 실시

완산경찰서는 7일 농촌진흥청 등 관내 국가중요시설 4개소에 대해 기관간 비상연락망 구축현황 및 무기탄약, 테러 대비 자체 방호계획 등을 점검하는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북한 6차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남북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북한의 후방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진행됐다.

완산경찰서장은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모의훈련 등을 통해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를 완벽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